

국립공원의 이용과 보존 - 어떻게 할 것인가

-국립공원 환경해설 프로그램 운영의 의미-



임 주 훈
(임업연구원)

프로그램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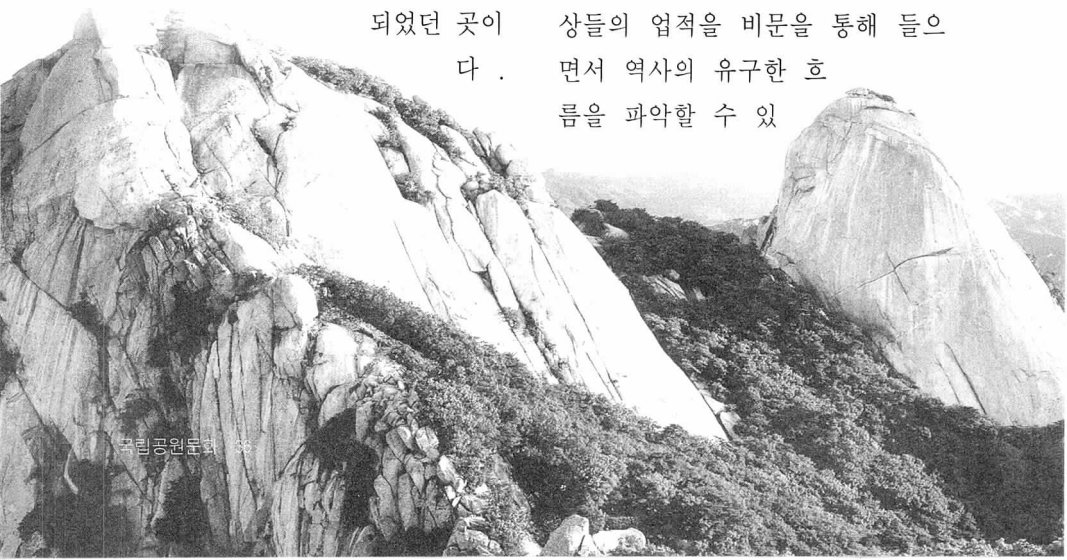
벚꽃이 피어 새하얀 꽃잎이 휘날리는 4월 중순부터 국립공원에 새바람이 불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부터 환경해설 안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공원협회에서 주관하는데 역사문화, 수목, 야생화라는 3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탐방코스를 정하여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에 전문 해설진이 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안내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보고 즐기는 풍경문화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제는 관찰하

고 학습하는 체험문화로 넘어가는 듯하다. 즉, 국립공원관리 주체인 공단이나 관할당국인 환경부는 환경해설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립공원을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의 장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탐방 코스와 내용

역사문화 탐방코스는 고양시 북한산성 분소묘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 시작된다. 가장 큰 성문인 대서문을 지나 내성으로 들어오는 중성문을 거친다. 이곳은 80년대까지만 해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이다.

계곡을 따라 올라오면서 산영루터를 만난다. 넓은 암반 위에 2층 누각이 있었던 곳이다. 누각이란 쉬며 풍월을 읊는 장소이므로 암반 위에 앉아 잠시 쉬면서 북한산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듣는다. 누각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암벽면에 새긴 명문이 있으니, 스님들이 산성 지키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승도절목(僧徒節目)'이다. 산성 안에는 골짜기 입구마다 바위에 이름을 새겼으니 '백운동문(白雲洞門)', '상운동계(祥雲洞界)', '청하동문(靑霞洞門)'이 그것이다. 중흥사지 못미처 선정비군이 도열해 있는 모습을 본다. 산성의 관리를 담당했던 조상들의 업적을 비문을 통해 들으면서 역사의 유구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



다. 북한산장으로 가는 갈림길을 지나면 태고사가 나온다. 태고사에는 원종국사탑이 있다. 고려말 보우 스님의 묘탑으로서 그옆에는 이색이 비문을 지은 탑비가 있다. 태고사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행궁지(行宮址)가 있다. 1712년(숙종 38)에 준공된 행궁은 20세기 초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방형초석과 담장터만 남아 있다. 큰 골짜기 쪽에는 금위영 유영지와 훈련도감 유영지가 나온다. 이 코스는 안내자의 해설이 끝나면 대남문이나 보국문 쪽으로 올라 산성밧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수목탐방코스는 정릉코스, 구기동 코스, 소귀천 코스의 세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정릉코스가 행해지고 있다. 만나는 지점은 정릉대표소에서 조금 올라가 북한산국립공원 바로 밑에 설치된 휴게소이다. 이 코스는 비교적 짧아 어린이를 대동한 가족단위로 숲을 즐기기 위한 탐방에 제격이다. 계곡 옆으로 비스듬히 난 길을 따라 영불사

까지 진행되는 이 코스에서는 동구발 과수원길의 아까시나무, 꿀샘이 있는 산벚나무, 국수 가락을 뽑을 수 있는 국수나무, 하얗 '백(白)' 자의 어원이 되는 열매를 가진 상수리나무, 여름이 다 되도록 낙엽이 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밤나무, 한 속에 잎이 2개인 소나무와 3개인 리기다소나무, 열편이 9개이상으로 우리 나라 산야에 흔한 당단풍, 가지를 잘라 씹으면 생강냄새가 나는 물질이 나와 갈증을 해소하고 천식을 삭인다는 생강나무, 사랑의 열매가 달리는 팔배나무, 정릉 계곡에서 처음 발견하여 '정릉'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릉참나무 등 키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나무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야생화 탐방코스는 구기동 대표소에서 시작된다. 구기계곡을 따라 대남문까지 오르며 하얀 꽃이 별 모양으로 보이는 개별꽃, 계곡 돌틈에 붙어살며 단풍잎 같은 돌단풍, 겨울에도 잎이 푸른 노루발풀,

나무에 깃잎이 붙은 좀깨잎나무, 가을에 붉은 자주색의 작은 꽃을 탐모양으로 쌓는 꽃향유, 금 빛깔의 탐스러운 꽃을 피우는 금붓꽃, 꼬리를 치켜들고 반쯤 잎을 연 남색 꽃이 피는 현호색, 검은 반점의 주황색 나팔을 부는 원추리, 보일까 말까 망설이듯 작지만 보라색 꽃이 탐스럽게 피는 용담 등에 대한 설명이 버들치나 옆새우 등의 물 속 생물과 함께 설명된다.

야생화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의 이유미 박사와 국립환경연구원의 서민환 부부가 엮어내는 야생화 탐방은 국립공원이 식용·약용·관광자원에 대한 무진장한 보고임을 만끽하게 한다.

탐방의 의미와 참가자의 자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한 유흥준 교수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어릴 적부터 북한산을 뒷동산 오르듯이

해온 분들이 많을 것인데 과연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많고 다양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널려 있음을 인지하여 왔는지 의문이다. 대부분 무엇인가 있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을 것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자녀나 손주의 손을 잡고 오를 적에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환경해설 프로그램은 이런 면에서 탐방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해결사이다.

이왕 배운다는 기분을 내기 위해 참가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 필기도구, 사진기, 동·식물도감 등의 준비
- 산보한듯 느긋하게 걷는다.
- 시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감을 열고 느끼며 관찰
- 자연과 문화를 구분하지 말고 함께 느끼는 것이다.

환경해설 프로그램의 또다른 의미

지금까지의 국립공원 운영기법

은 탐방객들에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수동적인 체제였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탐방객의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탐방객에 의한 훼손의 정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탐방객들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지 탐방로를 걷는 행위만으로도 상당한 훼손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 탐방 행위는 지형의 굴곡을 따라 걸으며 계곡과 능선, 나무와 돌과 물이 자아내는 풍경을 감상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탐방코스를 길게 잡는다. 그 결과 동일한 코스를 함께 하는 탐방객의 숫자가 상당히 많으며 이는 훼손으로 이어진다.

환경해설 프로그램은 이러한 무작위적인 훼손을 억제하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전문해설가에 의해 2시간에서 4시간 가량 진행되는 안내 프로그램을 통하여 탐

방객은 혼자 걸을때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며 짧은 거리 내에서도 볼거리가 많아지고 모든 자원에 호기심이 강렬해 진다. 따라서 탐방코스를 길게 잡지 않게 되며 훼손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결국, 환경해설프로그램은 자연과 문화에 대한 설명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연보호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며 자연을 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연 속에 동참하여 즐기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드는 것이라 하여 '입산(入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환경해설 프로그램이 단순히 지식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를 제공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

